

지원 · Juana 수정 · Conchita 준성 · Santiago 찬수 · Juan

13기 필리핀팀 2015년 6월 활동보고서



A group of four people (two women and two men) are posing on a rustic wooden log railing in a lush forest. They are all smiling and making playful gestures. The background is filled with tall pine trees and green foliage.

CONTENTS

> 6월 활동달력

> 우리 활동

덤프사이트·푸가로·살라핑가오

> 우리이야기

달테마·생일·영화관·김집·바기오(evaluation)

> 에세이

2015. 06

MON	TUES	WED	TRU	FRI	SAT	SON
1 DUMPSITE	2 DUMPSITE	3 REST DAY	4 PUGARO TAGALOG CLASS	5 PUGARO	6 SALAPINGAO	7 REST DAY (BLOOD DONATION)
8 DUMPSITE	9 JUAN'S BIRTH DAY	10 PUGARO	11 DUMPSITE	12 PUGARO	13 SALAPINGAO	14 REST DAY
15 DUMPSITE (POTLUCK)	16 DUMPSITE POSTPONED	17 PUGARO DUMPSITE (LAST DAY)	18 PUGARO	19 TAGALOG CLASS	20 Invite SALAPINGAO youth KYM'S HOME	21 REST DAY (KYM'S HOME)
22 PUGARO	23 PUGARO (LAST DAY) SALAPINGAO (LAST DAY)	24 MONTH THEMA with Coodinators	25 TAGALOG CLASS	26 TAGALOG CLASS	27 BAGIO (Evaluation)	28 BAGIO (Evaluation)
29 REST DAY (prepare for homstay)	30 HOMESTAY					



우리 활동



덤프사이트



ATTI CLASSE & HOUSE TO HOUSE

6월 첫 아띠클라세는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페이스 페인팅을 진행하였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웃으면 같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보냈으며, 그동안 아띠클라세 중 가장 흥미롭게 모든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6월 아띠클라세는 아이들이 개학을 해서 주로 아이들과 어울려 놀 수 있는 몸놀이수업을 진행하여 아이들과 더 가까이 더 안아주고 더 따뜻하게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의 하우스 투 하우스는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하기보다 서로 어울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다는 의견이 모아져 4명의 라온아띠 아띠들이 서로 각자 자유롭게 마을을 돌아다니며 마을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같이 어울려 놀기도 하며 마을에 어우러지는 시간을 보냈다.

상처치료는 아띠클라세를 하며 상처치료를 하긴 했지만 클라세에 좀 더 시간을 기울였고, 하우스 투 하우스를 하며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상처치료를 했다.



ATTI CLASSE GRADUATION & THANKS GIVING DAY

아띠클라쎄가 끝이 나다.

아띠클라쎄를 마치며 우리는 졸업식을 계획했다. 졸업식을 위해 아이들에게 줄 사탕목걸이와 아띠들의 사진을 붙인 노트, 학사모를 준비했다. 졸업식을 준비하며 아띠들은 아이들 생각에 흐뭇하기도 하고 설레고 만감이 교차하며 아이들 생각으로 가득 찼다. 졸업식 당일, 모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졸업식을 진행했고 아띠클라쎄의 졸업을 축하해주었다. 아이들과 즐겁게 졸업식을 마쳤다.

마을 주민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작게나마 음식을 준비했다. 마카로니 스프와 샌드위치를 준비해 마을 주민들이 함께 먹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서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말하기 바빴고, 서로 웃음짓기 바빴다.

이날 우리는 많은 마을 분들에게 오늘이 마지막날이냐는 질문을 받으며 우리는 활동 마지막날을 기약했다. 또 몇몇 아이들이 아쉬운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 "꾸야, 아떼 보고싶을꺼야~" 서로 숨기고 있던 마음이 숨겨지지 않았고, 아이들과의 앞으로 헤어짐을 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POTLUCK PARTY

마지막 포트락 파티, 우리가 마을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계획했던 포트락파티가 오늘로써 마치게 되었다. 처음의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점차 이 곳에 맞춰 포트락파티가 진행됐다. 3월에 생각했던 음식을 공유하는 계획과는 다르지만 우리는 더욱 값진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간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

우리는 샌드위치, 미노도, 메론 주스, 그리고 밥을 준비하여 덤프사이트 주민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었다. 그들은 맛있게 먹었으며 함께 웃을 수 있었다.

마지막 포트락 파티를 마무리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더욱 아쉬움을 남기곤하고 더욱 마음을 더 하게 된다. 처음에는 낯설게 다가왔던 사람들과도 이제는 누구보다 더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사이가 되었고, 언어적으로 많이 소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마음으로는 많이 소통했으리라 생각된다.



SAY GOOD - BYE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
덤프사이트에서 우리의 활동을 모두 마쳤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우스 투 하우스를 하며 작은 선물을 주기로 계획했다. 약과 위생품, 음식을 작게나마 준비해 우리는 처음으로 네 명이 모두 모여 하우스 투 하우스를 하며 우리의 마음을 전했다.

준비하기 전 날 우리는 덤프사이트의 대한 이야기를 새벽이 되도록 함께 나누었다.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마음, 그리고 새롭게 배우게 된 것들, 덤프사이트와의 헤어짐 등 덤프사이트를 생각하며 많은 것들을 처음으로 나누었다. 이야기를 하는 우리는 정말 뜨거웠고 온 마음을 다했다.

마지막 날, 우리는 덤프사이트에 있는 모든 집을 돌면서 모두에게 인사를 했고 고마웠다는 말을 전했다. 아띠들과 함께 아띠클라세를 했던 아이들은 마지막을 느끼는지 아띠들을 졸졸 따라다니며 업어 달라고 안아달라고 마음을 표현했고 마지막을 표현했다.
그렇게 우리는 덤프사이트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나왔다.





JUAN - 찬수

덤프사이트. 마지막을 준비하며 무언가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내 개인적으로 마음을 다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왜 다하지 못했던 걸까?

마무리를 해야 했던 덤프사이트에서 나는 또 다른 고민거리를 가지고 한국으로 가야 할 것 같다.



JUANA - 지원

덤프사이트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 곳에서 받은 사랑.
 내가 사랑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사랑을 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했었다.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덤덤하면서도 사랑스러운 아이들
 과 반겨주는 주민들을 볼 수 없음에 헤어짐이 아쉬웠다.

마지막날.
 헤어짐을 아이들도 느끼는지 업어달라고
 안아달라고 마음을 표현하는 아이들이었다.
 마음 속 깊이 아이들과 주민들을 담아두고 싶다.

다시 한번 아이들과 주민분들과
 함께한 팀원들에게 감사하다.♡



SANTIAGO - 준성

지난 4개월간 수많은 아이들의 빛나는 눈을 보며
나 역시 그들과 함께 빛나려 노력했다.

아이들이 Santiago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때마다 너무 행복했다.

행복했다. 행복이란 게 뭔지도 모르고 행복을 찾는데 시간을 낭
비하고 싶지도 않지만,
확신한다 나는 지난 4개월간 덤프사이트에서 행복했다.

그 만큼 나도 최선을 다했다. 후회 없이 줬고 곱절로 돌려 받았
다. 행복했다.

덤프사이트를 생각하면 눈물이 찼끔 날만큼 정이 들었다.
보고 싶다.



CONCHITA - 수정

우리의 활동지 중 가장 먼저 활동을 마쳤다.
덤프사이트를 가는 월요일, 화요일이면 덤프사이트가 많이 생각났다.

마지막으로 활동을 마무리하는 날
돌아가자는 김에게 2분만 아니 조그만 더 시간을 달라며 혼자 다시 마을로 돌아갔다.
그리곤 언제나처럼 처음 내가 이곳에 왔을 때처럼 마을 끝의 자말네 집부터 들려 마을 초입의 칸틴까지 한 분 한 분 인사하고 아이들을 안아주고 나왔다.
집에만 계시던 분도 내 이름을 한 번도 불러주신 적 없는 분도
이 날만큼은 나를 내 이름을 불러주셨고
잘가라고 고맙다고 인사하셨다.
웃으며 마음 따뜻한 작별인사를 서로 건넸다.

덤프사이트는 언제나 내게 많은 것을 주었고 느끼게 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고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보고싶을 이곳이다.



MARAMING SALAMAT SA DUMPSITE



푸가로

그린하우스

6월은 덤프사이트로 가는 지프니보다 푸가로로 가는 작은 보트가 더욱 익숙해 질 수 있는 한 달이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보트는 우리의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한 달 동안 우리는 그린하우스의 부족한 부분을 공사하였고 YMCA의 친구들도 그린하우스 작업을 도와주었다.

6월 개학을 맞은 학교는 아이들로 시끌벅적했고 학교의 많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며 함께 작업을 도와주기도 했다.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우리들은 좀 더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우리가 심은 식물에 궁금증을 갖는 아이들이 생겼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는 아이들에게 그린하우스를 알리고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했다.

그린하우스에 가지, 고추, 오프라, 등의 모종들을 모두 심고 후에는 아띠 하우스에 모아두었던 페트병으로 작은 화분을 만들어 배추씨를 심어 그린하우스 뼈대에 걸어두었다. 심은 지 삼사일이 지나 푸가로에 방문했을 때는 싹이 난 모습을 볼 수 있어 보람되고 뿌듯해했다.

홈스테이 이 후에 다시 푸가로에 방문했을 때 식물들이 무럭무럭 자라길 기도한다.



SEEDLINGS – MANGO TREE

푸가로의 마지막 활동 날에는 우리가 미리 준비한 망고 모종을 가지고 푸가로로 향했다.

지난 4개월 동안 도와주셨던 분들께 감사의 인사로 나누어 드렸다. 바랑가이 홀에 계신 분들께 첫 번째도 모종을 전달했다. 그리고 지난 달 350PPM 캠페인을 하며 씨들링집을 직접 찾아 나섰고, 그때 씨들링을 하기로 한 집에 찾아가 지난 4개월 간의 감사인사를 전하고 잘 키워달라고 부탁을 드렸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와 함께 했던 Intergrated school의 교장선생님과 간단한 간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했다. 향후 계획,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의 계획도 궁금해하셨다. 그리고 모종 4개를 전달했고 우리의 한국 이름을 모두 물어보시며 망고나무를 학교에 심어 우리의 한국 이름을 새겨주기로 약속하셨다. 또한 우리의 그린하우스에 관심 가져주셔서 앞으로도 학교신문에 그린하우스기사가 나갈 거라고 하셨다.





JUANA - 지원

6월 한 달 동안 푸가로의 그린하우스를 마무리하기 위해 자주 방문했다.

그린하우스 작업하는 과정에서 Y친구들과 개학을 맞은 아이들이 도와주었다. 다시 한번 Y친구들, 아이들, 주민분들 그리고 함께한 팀원들에게 감사하다.

홈스테이 이후 푸가로를 방문했을 때 그린하우스의 모습이 기대된다.



SANTIAGO - 준성

그린 하우스를 진행하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백 번의 계획보다 한번의 움직임이 더 효율적 일 때가 있다는 것을 그 어느 사이트보다 절실히 느꼈다.

그린하우스를 진행하기 전의 시간들을 후회하지 않는다. 낭비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푸가로에서 역시 좋은 추억을 만들었고 그린하우스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었다 생각한다.



JUAN - 찬수

푸가로의 활동을 정리하며 처음 푸가로를 방문 하던 3월을 떠올려본다.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것들을 할 것 같았던 그때.

활동을 정리하는 6월. 우리와 함께 했던 ymca친구들, 푸가로 학교 선생님들, 푸가로 학교의 친구들..

그들중에 우리는 하나였고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



CONCHITA - 수정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그린하우스를 지으러 갔던 날이다.
연장이 있는 곳의 열쇠오기를 기다리며 아이들과 뛰어놀다 교실밖에 있는 칠판에 그림을 그리고 놀고 있는데 한 아이가 우리의 이름을 모두 적어주었고 수줍게 웃었다. 전기수는 물론 코디들의 이름도 칠판에 써내려갔다. 깜짝 놀랐다. 우리가 라온아띠가 기억되고 있구나 싶었다.

그린하우스를 지으며 아이들을 만났고,
그린하우스를 지으며 짧지만 하우스 투 하우스를 했고,
그린하우스를 지으며 Y친구들과도 함께 했고,
그린하우스를 지으며 많은 땀을 흘렸고,
그린하우스를 지으며 많은 것들을 겪고 느꼈다.

푸가로의 활동을 마치며 이곳에서 우리가 그린하우스만을 짓지는 않았구나 생각된다.

필리핀에 오기 전부터 그린하우스에 관심가졌던 나,
그만 쉬라고 꾸중까지 들으며 일했던 나라서 그런지
그린하우스가 정말 애착이 간다.
우리가 없는 동안에 잘 관리가 되길 아이들이 관심 가져주길 바라고 또 바란다.



MARAMING SALAMAT SA PUGARO



살라핑가오

350ppm 캠페인

5월에 이어서 6월에도 350PPM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처음에는 낯설게 우리들에게 인사하던 사람들도 하나 둘씩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기도 하였고 꼬마아이들은 우리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함께 캠페인을 하기도 했다.

6월의 350PPM 캠페인은 5월에 한 캠페인에 더 나아가 전에 캠페인을 했던 곳을 다시 방문해서 작은 실천의 약속을 받았고 350PPM 스티커를 만들어 집에 붙이는 등의 350PPM을 알렸다. 기존에 하지 못했던 곳도 찾아가 살라핑가오 마을에 더 라온아띠를 350PPM을 알렸다.

마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우리들은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 마을 이곳 저곳의 집을 방문하며 350PPM을 진행하였다. 코디들의 도움 대신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 청년들이 우리가 영어로 설명하면 따갈로그어로 통역을 해주었고, 처음에 쑥스러워하던 청년들도 이제는 우리와 능숙하게 350PPM 캠페인에 대해 설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라온아띠에 대한 소개,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했다.

이제는 더 이상 살라핑가오에서 타이완사람이냐는 말이 들리지 않았고, 드디어 코리아나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ATTI HOUSE에 SALAPINGAO YOUTH를 초대하다

지난 4월 아띠들이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살라핑가오 청년들을 만난 지 벌써 3개월이 되었다. 그 동안 살라핑가오에서의 모든 활동을 우리들과 함께하며 마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우리에게 마을길잡이가 되어주고, 마을사람들과의 소통의 통로가 되어주곤 했다. 처음의 우리가 청년들과의 만남을 계획하고 서로 각자 바라는 활동에 차이 등 우리의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고 보고싶어 하고 웃어주는 이 친구들에게 고마웠고 이제는 정말 친한 친구,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코디들만이 청년들에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며 우리가 그 친구들과의 만남을 약속했다.



아띠들은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다.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아! 함께 집에서 밥을 먹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는 친구들을 우리집에 초대하기로 했다.

아도보와 김밥을 준비해 함께 점심을 먹으며 서로 장난도 치고 이야기도 공유하였고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점심을 같이 하고 나서 간단한 과자와 음료수를 먹으며 '어바웃 타임' 영화를 함께 보았다. 밥을 먹은 후라서 모두 즐기며 영화를 봤지만 그 또한 서로 웃음짓게 했고, 모두들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했다.



SEEDLINGS - GUAVA TREE

살라핑가오 FAREWELL; SEEDLINGS

우리는 첫 만남 때 같이 찍은 우리들의 사진을 준비해 코디들의 도움을 받아 따갈로그어로 고마움을 전하는 편지를 적었다.

살라핑가오의 마지막 날, 사진편지를 전하고 준비한 구아바 모종을 친구들 집에 한 곳씩 들러 함께 심었다. 처음으로 모두 같이 우리와 함께 했던 친구들의 집을 가 볼 수 있었고, 이미 친구들 집을 알고 있는 아띠들이 앞장서 가기도 하며 살라핑가오를 누비곤했다.

아름다운 이 살라핑가오와도 언제나 달려오던 개구진 살라핑가오 아이들과도 마지막 활동이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웃으며 안녕을 말해주는 이 친구들과도 안녕을 말했다. 정말 고맙다고 정말 즐거웠다고 정말 보고싶을 거라고





CONCHITA - 수정

“Hindi k kayo makakalimutan” - 마지막 활동 이후 살핍친구에게 온 페북메세지

첫 사이트인 살라핑가오에서 처음으로 계획한 청년들과의 만남이 절대 후회되지 않는다.

이곳에서의 활동을 다른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하건 간에 나는 이곳에서 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내게 언제나 보고싶다고 말해주었고, 기다려주었고, 함께 웃었고 함께 즐거웠다.

미안하기도 했고, 언제나 고마웠고 감동받기도 하고 이 친구들이

나에게 따뜻함을 긍정적인 마음을 커다랗게 했다.

“Ako din, maraming salamat” - 나도 절대 잊지 않을게 정말 고마워

처음 만난 나에게 피부가 하아서 부럽다고 자기는 피부가 검어서 못생겼다고 했던 친구가 마지막날에는 그 친구가 이제는 자기같이 피부가 검어졌다면서 이제는 안 하얗다고 웃으며 장난쳤다. 활동 마지막 날도 그냥 여느 날과 다른없는 것 같았고 홈스테이 다녀오고 연락하겠다며 헤어졌다.

이 친구들이 고맙고 좋다.



JUAN - 찬수

살라핑가오. 그곳에 가기 전 많은 회의들을 했고 많은 고민들을 했었다.

그 마을에서 많은 것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린 분명 친구가 생겼고 함께 했던 추억을 가지고 돌아간다.

많이 보고싶을꺼야 ~ 고마웠어 친구들아.



SANTIAGO - 준성

잘 마쳤다.

많은 생각과 계획들. 모두 실천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만나며 즐거웠다.

무엇보다도 살라핑가오 청년들에게 감사하다..

부족했던 우리의 계획과 활동들이 그들 덕분에
훌륭하게 채워졌다.

많은 것을 남기진 않았지만 그저 이 친구들을 알
게 된 것 만으로도 만족한다.

안녕~~고마웠어 살라핑가오~~~



JUANA - 지원

살라핑가오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단어는 청년 그리고 친구들.

청년들을 만나면서 활동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 부족함도 많았지만 청년들 덕분에 살라핑가오 마을에 대해 깊이 알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과 소통이 편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를 보면 환하게 웃어주고 보고 싶었다고 다가와주는 이 친구들과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다시 한번 함께한 친구들과 주민분들과 팀원들에게 감사하다. ♡



350ppm 캠페인 - 작은 실천 약속



MARAMING SALAMAT SA SALAPINGAO



우리의 이야기

박찬수(Juan)아씨의 생일

13기 팡팀의 kuya(오빠.형)를 담당하고 있는 박찬수아씨의 생일을 맞이했다.

오전에 팀원들과 영화보기 위해 나들이를 갔으며, 저녁에 y친구들과 팀원들의 연기에 놀랐으며, y의 많은 친구들과 팀원의 사랑이 넘치는 축하를 받으며 생일을 보냈다.



6월 달테마- 사람 책

권준성아띠의 6월 달테마는 '사람 책' 그 사람을 읽는다. 라는 의미를 갖고 두명씩 이야기를 들으러 나가는 것이다.
다구판을 그들은 누비며 이야기를 나눴다.

팀원들과 사람책을 하며 코디들과도 사람책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코디들과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필리핀 13기 팡팀은 책을 좋아한다.

이름하여 사람 책.



우리도 영화를 보았어요♡ -San Andreas

박찬수아씨의 생일을 맞이하여 4명의 아씨들이
Robinson mall로 출동했다.

영화를 보기 전 로빈슨 몰 구경과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San Andreas 를 보며 가족의 사랑을 느끼며 돌아왔다.



홈스테이 IN KYM'S HOUSE

우리의 코디이자 소중한 친구인 Kym집에 놀러 갔다. Kym의 집은 우리가 앞으로 홈스테이를 하게 될 산 하신토라는 곳에 있으며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을 둘러볼 수 있는 곳이다.

1일차 저녁식사는 김의 사촌분에게 초대를 받아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많은 Masarap(맛있는)음식과 반겨주시는 가족들 덕분에 즐겁게 있을 수 있었다. 다음 날 김 어머니께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주셨고 김의 가족들과 함께 같이 게임을 하고 같이 산책도 하며 같이 즐겁게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모든 활동을 마친 아띠들이 이곳에서 편하게 휴식을 가질 수 있었다. 다시 한번 salamat po! (감사합니다)



Baguio

드디어 Baguio로 떠난 아띠들..!

홈스테이를 제외하고 모든 활동을 마친 아띠들!

4개월간 쌓였던 스트레스와 다구판의 소음, 매연들을 잠시 잊을 수 있던 꿀같은 시간을 보냈다, 또한 꾸야 지미와 코디네이터들과 함께 지난 4개월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말로만 듣던 Baguio의 신선한 공기와 숨이 트이는 자연을 체험할 수 있던 소중한 시간이 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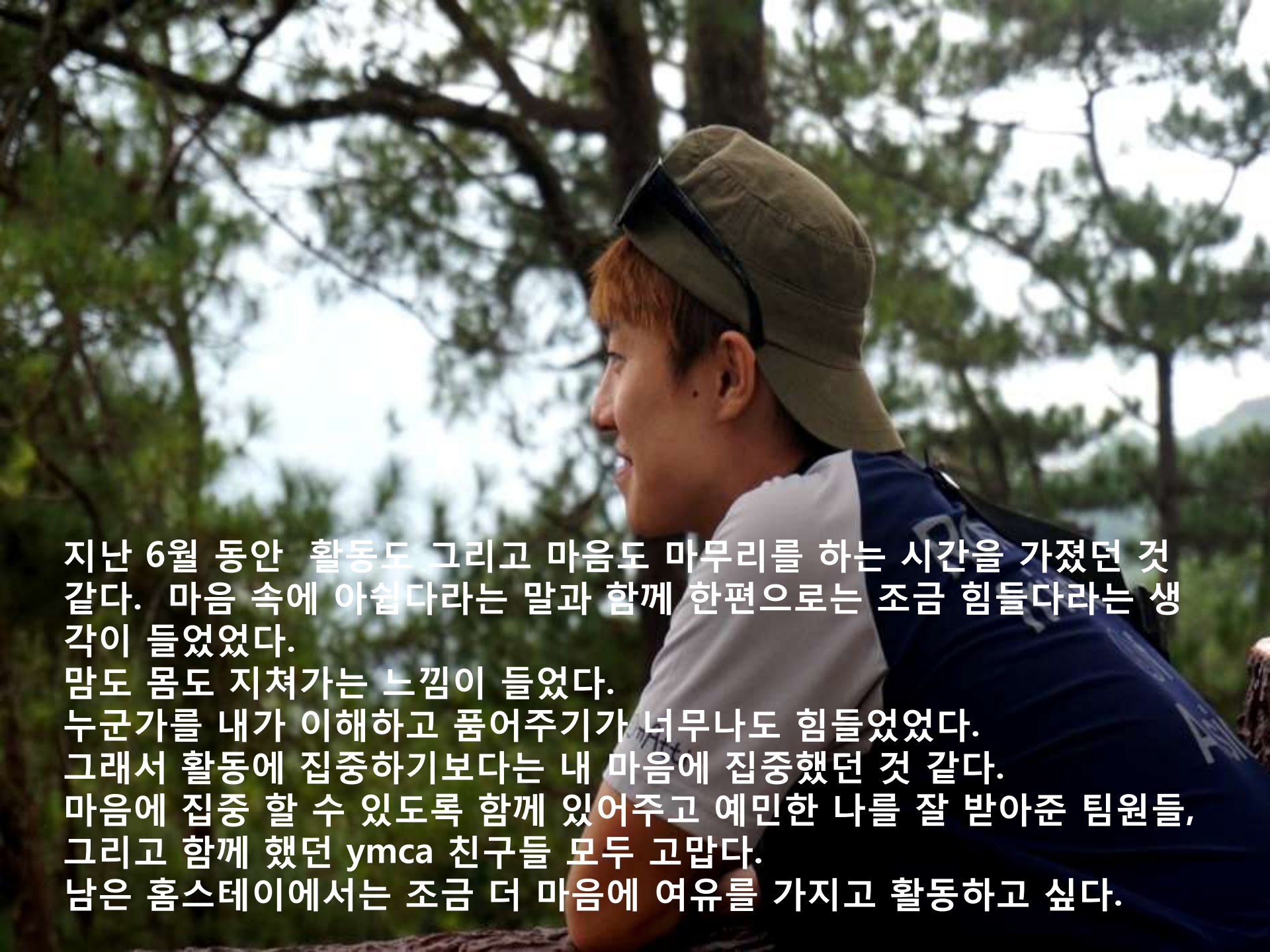








에세이


A man with short brown hair, wearing a green bucket hat and a blue vest over a white t-shirt, is shown in profile, looking towards the left. He is outdoors, with a dense forest of green trees in the background. The lighting is soft, suggesting an overcast day or a shaded area. The text is overlaid on the lower half of the image.

지난 6월 동안 활동도 그리고 마음도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다. 마음 속에 아쉽다라는 말과 함께 한편으로는 조금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맘도 몸도 지쳐가는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를 내가 이해하고 품어주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었다.
그래서 활동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집중했던 것 같다.
마음에 집중 할 수 있도록 함께 있어주고 예민한 나를 잘 받아준 팀원들,
그리고 함께 했던 ymca 친구들 모두 고맙다.
남은 홈스테이에서는 조금 더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활동하고 싶다.

Juana(우아나)
-채지원

Salamat po





Salamat po

6월 중순.

활동지 마무리를 서서히 준비해간다. 요즘 새벽바람은 차갑다.
그리고 가스도 떨어지고 똑딱 똑딱 움직이던 시계바늘은 멈추고
하나 하나씩 이 친구들도 준비 하나보다.

새벽바람에 가만히 하늘을 보고 있으니 묘한 기분이 든다.

6월 한달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부족함 그리고
텅텅 빈 마음으로 힘들기도 했다.

벌써 4달이라는 시간을 살았고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작은 하나 하나의
감정들이 바람처럼 날아가지 않고 내 몸 안에서 마음에서
깊게 남아있기를 바라본다.

돌아가는 순간까지 조금 더 뜨거운 마음을 나누기를.

SANTIAGO



내가 웃는게 웃는게 아니야~~

6월말 예정에도 없던 Hospital stay를 3박 4일 간 진행하였다.

3박 4일간 새벽이건 아침이건 Antibiotic sir! 을 외치며 엄청 아프게 약을 투여하던 수많은 간호사분들과 점심 드시다 갑작스레 나를 진찰해주신 의사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Hospital stay 이라는 쉽지 않은 선택을 내려주신 꾸야 지미와 언제나 내 옆을 지켜주던 롤리, KTX못지 않은 기동력을 선물 해준 KYM 그리고 힘이 되어준 3명의 아띠 에게 감사하다.

(정체 모를 죽을 끓여주던 와나)

(게토레이를 사다주던 완)

(오빠~~~괜찮아??아 진짜 어떡해 를 외치던 콘치타)

다 고맙고 사랑스럽고 미안하다.

나 6월 한달 정말 힘들었다.

아니 어쩌면 지난 4개월이 나에게 힘들었는지도..

홈스테이를 들어와있는 지금 너무 편하고 좋다.

나 이제

그저 사랑하고

사랑 받다 가리.

살만하니?
응 살만하지
....

감혀있는 내 삶의 반경 중 새로운 곳이
내가 언젠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생긴 것 같아 좋아

활동마무리하고 있으니 끝났다고 다들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앞으로 있을 홈스테이도 새로운 시작이고 기대되
남은 이주도 아직 많이 남았고

그냥 시간의 흐름이 빠르건 느리건 이 시간이 소중한 시간인걸 아니까
그냥 좋아

_ 찬수오빠와 걸으며 대화 중

CONCHITA

지쳐있던 내가 점점 일어났다.

나답게를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지도 알게 됐다.
또한 지난 그리고 앞으로도 관계에 관해서 정말 피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다.

어찌됐든 어떻게든 내가 맘편히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우리 팀원품이라는 것도
믿을 수 있는 친구라는 것도
나를 믿어 줄 수 있는 친구라는 것도
좀더 솔직해 질 수 있게 기다려 준 것도
모두 고맙고 감사하다.

“심심하다”는 말을 자꾸 하게 됐다.

점점 더 재미있어진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보다 더 신이 났다.
자꾸 자꾸 신이 났다.
이런 내가 너무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매일 매일이 즐겁고 내 에너지를 어디에 쏟을 지 모른 채 그저 심심하다는 말을 자꾸 하게 됐다.
이런 내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한 나도 참 좋다.

자꾸 점점 신이 났던 6월 한 달이다.



Name	Activity
G/S	classifier
	Title

1. Consita
2. Juana Amara
3. Juan
4. Santiago friend of Jerry
5. Rolly
6. Tony
7. Joshua

SALAMAT PO ♡

오빠들의 데이트



헌혈하는 JUAN & TIAGO



팡가시난대학에 간 SITA

우리 생활 살짝 엿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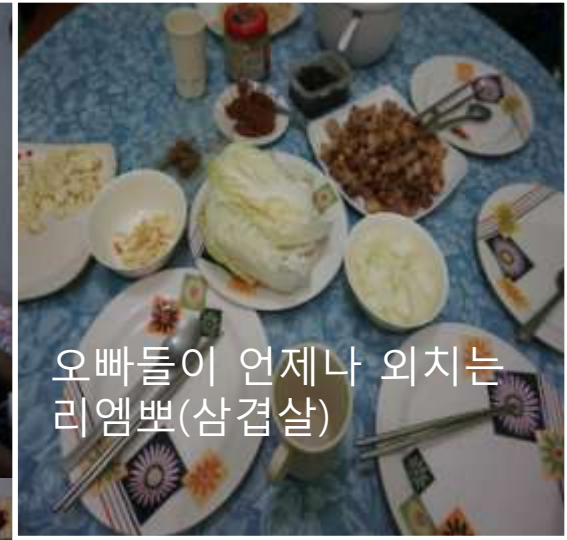


첫 나들이





TEDDY집에 간 SITA & JUAN



오빠들이 언제나 외치는 리엠뵈(삼겹살)



Will게임하는 아띠들



달테마하라 갔다 먹방찍고 온 SITA&JAUNA

